

세계가스총회 연계 외신기자 울산 수소에너지 시설 현장취재 시행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최성광 대표이사)은 5월 25일(수) 세계가스총회에 참석한 외신기자들 대상으로 울산 수소에너지 시설 현장취재를 시행하였다.

이번 현장취재는 세계 최대 규모 가스관련 행사인 세계가스총회(WGC)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활용의 모범적인 사례를 외신이 취재하고 이를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국민이해를 제고하고자 진행되었다.

일본, 중국 등 10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했고 오찬 기자간담회,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방문, 수소선박 체험 등의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는 산업부 양병내 국장의 서면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이승훈 본부장, 울산테크노파크 우항수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두산퓨얼셀 문상진 상무의 수소정책 및 산업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간담을 통해 정부, 지자체, 기업들의 성과 및 현황,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이 되었다.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에서는 홍보관 견학, 수소연료전지 실증 연구시설 취재, 수소차 시승 등을 통해 울산시의 수소경제 이행·실증 현황 및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생포항에서는 수소선박 충전 프로세스 설명, 수소선박 개발·운영 업체의 사업현황 브리핑, 수소선박 탑승체험이 진행되었다. 배터리 및 수소전기 선박의 상용화 기술과 미래형 해양 모빌리티 체험, 수소선박의 미래와 향후 과제에 대한 취재 및 논의의 자리가 이어졌다.



〈언론보도 리스트〉

국가	언론사명	주요내용	비고
일본	<p>Nikkei Asia <small>TECHNOLOGY</small> South Korea makes big bet on energy transition to hydrogen <small>Hyundai, Occidental callulater new markets but face questions of competition and cost</small></p>  <p><small>KNA ASKOLA, Mike Jeffreys June 3, 2022 10:31 AM</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수소에너지 전환에 큰 베팅 - 조선, 석유화학 중심이었던 울산은 수소에너지 전환의 샌드박스로 탈바꿈. 정권교체 이후에도 수소 전략이 지속되는 현황 주목. 한국은 현재 수소산업에 있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 공격적인 투자로 경쟁 가시화 	-
중국	<p>Science&Tech Technology Daily <small>韩国：官民共举提振氢能经济</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은 WGC 축사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생산시설, 안정적인 수소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언급. 중국은 아시아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필요. ○ 민관이 공동으로 수소에너지 경제 추진 - WGC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GHIAA 출범. 	2회
	<p>인민일보 <small>第28届世界天然气大会在韩国大举举行</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수소에너지로의 전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 강조.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국내외 수소생산시설 구축, 안정적인 수소공급망 구축 필요 	-
러시아	<p>Sputnik News Agency <small>Как водород смещает нефдоллар и меняет международную систему</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가 에너지분야 국제시스템을 바꾸는 방법 - 화석연료 기반의 산유국 중심 경제체제에서 한국의 수소산업과 수소에너지의 역할기회 및 가능성 주목.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전·운송 등 분야에서 강점 보유.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러시아	<p>Russia Primamedia</p> <p>Завершилась Всемирная газов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городе Тэгу в Южной Корее</p> <p>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85 стран, 40 компаний и 800 человек</p> <p>Место: Рёнхёнхва - 1 этаж C17-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가스총회가 대한민국 대구에서 폐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 재단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실증센터 방문, 수소선박 체험 등으로 대한민국 수소 경제 정책성과 및 비전, 현황 등을 알 수 있었음. WGC는 8,800명 460개 기업 등이 참여. ○ 한국기업 BMT, WGC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선박용 초저온 밸브 및 고전압 수소 밸브를 설계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2020년 산업부 '초고압용 파이프라인 밸브, 디스펜서, 열교환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으로 선정 	2회
카자흐스탄	<p>Kazakhstan TV (Khabar agenc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수소의 잠재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2050년까지 모든 산업과 차량의 30%를 수소로 활용할 계획. 현재 약 2만대의 수소차가 운행 중. 세계최초의 수소트럭은 작년 10월부터 스위스에서 200만km의 주행을 완료함. ○ 한국에서는 수소 모빌리티가 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수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러 프로젝트 추진 중으로 수소 사용이 증가 추세. 산업단지인 울산에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수소 적극 활용 중. 울산은 2,400대의 수소차와 9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며, 8시간동안 운행할 수 있는 수소선박 보유. 수소는 온실가스 없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 예상. 	2회